

“상처도, 기억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거죠”

‘민중미술 1세대’ 강요배 작가, 광주시립미술관서 민주인권평화전

‘제주 4·3’, ‘오월 광주’ 넘어 시대 관통하는 삶의 궤적 조망 오늘, 우리와 눈맞춘 날카롭고 따뜻한老작가의 세상읽기

“지나간 일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오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오랜 시간 화폭 위에 담아온 민중미술 1세대 강요배 작가가 광주에서 전시를 연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풍경과 역사를 따로 떼어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지나간 비극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삶 속에 스며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27일까지 본관 1·2 전시실에서 민주인권평화전 ‘강요배: 시간을 품다’를 선보인다.

작가의 첫 개인전 이후 50년 만에 마련된 대규모 회고전이다.

제주4·3 연작과 제주의 자연을 담은 풍경화, 오월 광주와 관련된 작업, 최근 신작까지 60여 년의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전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제주 시골에 사는 노인’이라고 표현한 그는 “큰 도시 광주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돼 감사하다”고 웃어보였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5·18의 특정 장면을 노골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당시 거리의 긴장감과 시대의 분위기를 압축해 담아낸 작업들이다.

‘철목’(鐵木)은 1980년 5월 거리의 팽팽한 긴장감과 시민들을 향해 밀려오던 폭력의 분위기를 화면에 담아낸 작품이다. ‘광음’(光音)은 당시 차량 시위 장면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혼란과 움직임이 뒤섞인 시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풀어냈다.

함께 공개된 ‘망월’은 5·18 희생자들의 안식처인 망월동을 가리키는 동시에 ‘동근 달’의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



‘망미빛 하늘’

작가는 이 작품에 시대를 묵묵히 바라보는 시선과 기억의 감각을 함께 담았다.

그의 작업 세계에서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제주의 바다와 바람, 돌과 하늘은 인간의 삶과 죽음, 역사적 기억을 함께 품고 있는 존재들에 가깝다.

작가는 “사람을 직접 그려야만 역사가 되는 건 아니다”며 “풍경 속에도 시간이 남고, 지나온 삶의 흔적이 스며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제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온 이유 역시 그 때문이라고 했다.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난 강요배는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에서 활동하며 시대 현실을 담은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제작한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은 제주4·3의 역사를



강요배 작가

정면으로 다룬 대표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인터뷰 말미에는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이제는 제국주의·식민주의적 감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삶과 역사에서 나온 감각을 우리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철목’(鐵木) (사진 위)과 ‘광음’(光音)

케빈 추,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연주 도전

24일 광주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그랜드스테이지 - 슈퍼클래식몬스터’

광주예술의전당이 클래식 역사상 가장 난도 높은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전곡 무대를 선보인다. 단 한 대의 바이올린으로 이어가는 초고난도 독주 무대다.

전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그랜드스테이지 - 슈퍼클래식 몬스터’를 개최한다.

‘슈퍼 클래식 몬스터’는 국내외 클래식계에서 독보적인 기량으로 주목받는 연주자를 ‘몬스터’라는 컨셉으로 소개하는 시리즈 공연이다.

이번 무대는 반주 없이 바이올린 한 대만으로 진행되는 독주 공연으로, 연주자의 집중력과 기교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인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는 바이올린의 기술적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곡 당시에도 연주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도전 무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케빈 추는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와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특히 2018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우승 당시 ‘카프리스 최고 연주상’도 함께 수상했다.

카네기 홀,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 세계 주요 무대를 누비고 있는 케빈 추는 오는 광주 공연을 통해 카프리스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 가능하



케빈 추

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며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2인2색’...선우정아·김수영 ‘Between’

22일 광주예술의전당 영 스테이지 무대

서로 다른 음악적 색을 지닌 선우정아와 김수영이 한 무대에 올라 광주 관객들과 만난다.

광주예술의전당 ‘영 스테이지’(Young Stage) 시리즈 일환인 선우정아·김수영 공연 ‘Between’이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영 스테이지’는 동시대 감성을 이끄는 아티스트를 조명하며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소개하는 전당의 기획공연 시리즈다.

선우정아는 재즈, 팝, 록, 힙합, 전자음악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해온 아티스트다.

보컬을 악기처럼 활용하는 섬세한 표현력과 프로듀서로서의 감각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사운드를 선보이며 익숙함과 낯섦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김수영은 담백하고 진솔한 감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서사를 음악에 담아내는 싱어송라이터다.



선우정아



김수영

따뜻한 기타 사운드와 정교한 멜로디, 진정성 있는 가사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록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음악적 색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음악 언어를 지닌 두 아티스트의 무대를 연속적으로 구성해 관객에게 다층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묘 이 강 · 개 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